

예장총회, 창립총회 열고 총회장 홍재철 목사 추대



예장총회와 개혁총회 양 교단의 통합 제언에 총대들의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투병생활에 고통 중에 있는 박윤식 목사를 위해 통성기도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기총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이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총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창립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예장 개혁 조정대 증경총회장, 백기환 한기총 명예회장 등이 내

빈 순서자로 등단하여 축하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예장총회는 29일 오전 11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로에 위치한 경서교회(담임 홍성익 목사)에서 1. 진실한 제자가 되라. 2.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예언자적 소명자가 되라.

4. 순교자적 사명자가 되라는 슬로건 아래 750명의 총대 가운데 590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창립이지만 장로교단의 맥을 잇는다는 뜻으로 99회기 총회가 개최됐다. (2면에서 계속)

2014 신임교단장 단체장 총무 취임감사예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10월 2일(목) 오후 5시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4 신임교단장(단체장) 총무(사무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한국교회연합 38개 회원교단과 12개 단체장 신임 총회장 단체장, 총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찬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김정훈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홍기숙 장로(법인이사)의 성경봉독, 직전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석광근 목사(법인이사)가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를 위하여', 강진문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전태식 목사(법인이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글출 장로(평신도위원장)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다.

직전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19)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나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한다고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이제 교회는 진정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는데 모든 교단들이 힘을 합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축하와 격려 시간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사무총장 김준규 장로사 신임교단장과 단체장 총무를 소개하고 대표회장이 신임교단장을 대표해 우종후 목사(합신 총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축복교회 연합총창단의 축가에 이어 김명혁 목사(병예회장)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조일

래 목사(법인이사), 박성배 목사(기하성 증경총회장)가 축하했다. 이신웅 목사(기성 총회장)가 답사한 후 대표회장이 전광훈 목사(대신 총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증경대표회장 김요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교회는 지난 2012년 3월 창립된 이래 현재 38개 회원교단과 12개 단체가 한국교회의 건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한 교연이 한국의 여러 연합기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은 곧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회장은 이어 "우리는 과거 큰 교단이 독식하던 연합사업의 그릇된 병폐를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면서 큰 교단은 작은 교단을 배려하고, 작은 교단은 큰 교단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안에는 장로교도, 성결교도, 오순절도 있고, 보수도, 진보도 있지만 신학의 전통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신학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하나됨과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도 각 회원교단의 결의를 존중하며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성 총회장 이신웅 목사는 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단의 대표로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뜻이 계시다"면서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사황도 우리 모두가 진정 성령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북은 대통령의 청을 거부하고 돌아가

황병서 일행 3인이 난쟁이 물려다니듯 웅기쭈기 물려와 아시아게임 폐막식을 보고 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데, 많은 방송 매체들이 한다 하는 사람들 모셔다 이야기를 시켜보았지만, 그럴듯한 대답은 아직 없었다. 필자 역시 아직도 그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에서 필자가 읽을 수 있는 뒷그림은 김정은이 사람 구실, 지휘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 시각은 모든 평론가 모든 매체들의 시각과도 정 반대되는 시각이다. 김정은의 안부를 묻는 류길재에게 김양건이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

필자는 그들이 "나를 만나고 가라"는 대통령의 청을 거부하고 갔지만, 혹시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3명이 연대서명한 친전서한"을 남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친전서한의 내용을 혹시 믿지 못할까 염려해서 세 사람이 얼굴로 도장을 찍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지금의 북한을 이 세 사람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은 남한으로부터 선물을 얻어서 북한 주민에게 풍성히 배급해줄으로써 이 세 사람의 통치가 김정은 통치보다 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만일 필자의 이런 생각이 빗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언론들의 보도에 맡겨둘지 말고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든 언론들은 마치 "정상회담"이 전가의 보도인 양 그들의 방문을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경망동에 앞장 서 있다.

"정상회담"은 최소한 금년 이내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필자는 정상회담 자체를 위협시한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권 확대가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살

아있는 동안 미국 등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 및 외교적으로 고립 고사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 9월 16일부터 시작한 유엔 프로세스는 "김정은을 히틀러와 크메르루즈와 동급의 살인마로 규정하고 그를 국제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11월에 종결될 모양이다.

그런데 이 유엔 프로세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은 미국에 엿을 먹이고, 유엔 프로세스에 초를 치는 배신행위가 된

박근혜 정부, 유엔프로세스에 초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다. 언론들마다 5.24 완화 또는 해제 조치를 들먹이지만 이는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위배된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사라지고, 북한의 새로운 인물이 자유민주 체제로 전향하고 핵무기와 군축을 단행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의 대북 프로세스에 적극 따라야 한다. 이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논리다.

만일 이번 유엔회기에서 김정은을 국제재판에 세우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미국과 나토 등이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유고의 밀로세비치처럼 김정은을 재판에 세우기로 한다면 가장 다급한 쪽이 중국이다. 만일 미국과 나토 등이 김정은 체포작전에 나선다면 북한 땅에는 미국 군사력이 진주한다. 이는 중국에 악몽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 중국 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이야말로 김정은 제거 작전에 앞장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출랑거릴 군번이 아니고 시기도 아닌 것이다. 설사 김정은이 제거됐다 해도 북한이 세계가 비라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그들을 꾸준히 요리해야 한다. 북한은 요리의 대상이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개인이나 공인이나 욕심이 있으면 사기를 당한다. 욕심 없는 사람 절대 사기 안 당한다. 북한을 상대로 무슨 욕심을 그리도 많이 키웠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제99회 성 총회 신임원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비상하는 합동보수총회”(시133:1)

총회장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경남신학원학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종성한교회	박영석 목사 예본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원과 총회가 되도록 하다.
2.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갈기로 하다.
3.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하다.
4. 신학과 정치가 같은 회원을 받기로 하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2014년 베를린 성시화 컨퍼런스 개최

‘2014 베를린성시화컨퍼런스’가 독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현배 목사) 주최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 기간을 전후로 체코 프라하와 독일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우크라이나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한다.

“독일 통일의 사례와 통일 코리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베를린성시화컨퍼런스는 통일트랙과 성시화트랙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강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용인 새에덴교회)와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창원 임미누엘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홍보대사인 헬리스트 정민영 선생이 특별연주를 한다.

통일트랙은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 교회의 역할”(Z Fischer 목사, 독일 다니엘교회), “동서독 통일의 교훈과 통일 한국의 비전”(Helmut Diefenbach 목사, 독일 예호수아 교회, 예호수아 공동체 대표), “독일 통일이 해외한민교회에 주는 교훈”(한은선 목사, 베를린 한인선교교회, 유럽코스테 대표), “북한 성시화의 전략”(김철영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5. “통일 독일에 남긴 동독의 유산”(정선경, 프



리랜스 저널리스트), “통일을 준비하는 이 세대의 비전”(윤지중 박사, 베를린 공과대학), “유럽에서의 탈북자 현황”(최영목 목사, 헤이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의 발제가 있고,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을 하게 된다.

성시화트랙은 발제 “성시화 운동과 사회 책임”(전용태 장로, 전 춘천, 청주, 인천, 대구지검 검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에서 본 성시화”(김석원 목사, 미국 올랜도 총현장로 교회, 올랜도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미주성시화의 선교전략”(이성우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성시화

운동과 중보기도”(최호자 권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중보기도팀장), “우크라이나 성시화의 선교전략”(김병범 목사, GMS 우크라이나 선교사), “유럽교회사에 나타난 성시화의 현상”(김현배 목사, 독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등의 발제가 있고, 역시 종합토론을 하게 된다.

또한 남북 통일과 유럽 성시화 관련 베를린 선언문을 발표하고, 독일 통일기도회의 현장이었던 라이프치히와 바르샤바 대통령이 남북통일 관련 연설을 했던 드레스덴,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기도회와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대회를 갖는다.

대표회장 김현배 목사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슴 속에 품었던 꿈은 두 가지였다. 첫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 많이 부패해져 있던 제네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개혁되는 것과, 둘째 많은 술집과 사창가로 인해 환락과 방탕의 도시였던 제네바 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의 꿈은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하여 이루게 되었는데 제네바에 교회 개혁과 영적각성, 국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도시가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한 “가난과 패배주의, 동성애, 이혼, 마약, 알콜 중독자들이 많이 있고, 25-30여 한인교회들이 연합과 하나 됨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베를린 성시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동서독 통일의 상징적 도시인 베를린에서 통일을 주제로 성시화 컨퍼런스를 갖게 되어 의미가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과 해외 한인교회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장로는 또 “독일의 몇 도시와 체코 프라하,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을 통해 동유럽에 성시화운동을 통한 교회의 부흥과 도시변혁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베를린성시화컨퍼런스에는 한국, 미주, 유럽 등에서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한기총 제25-9차 임원회의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6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5-9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31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회원교단 가입 및 탈퇴 승인의 건으로 한기총에 복귀 의사를 밝힌 (사)한국의향선교회(상임회장 이광선 목사)와 제명철회를 요청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회장 윤선중 목사), 탈퇴를 표명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용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질서확립위원회(위원장 정학채 목사)에 위임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법인이 사선임 및 총무임명에 관한 건으로 한기총 법인이 이사로서 권한이 만료된 사람(14명)에 대하여 대표회장에게 위

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현재 윤덕남 목사가 총무서리로 되어 있으나 소속교단(기독교대한침례회)이 한기총에 복귀한 상태가 아니므로 교단이 복귀한 후 총무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안산 재래시장 방문의 건으로 10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세월호 사고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안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정학채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열왕기상 6장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인간적인 소리, 잡음이나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부족한 종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아서 섬기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거룩한 찬양과 감사만 있을 뿐, 세속적인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화복, 화해, 사랑, 용서, 이해, 관용이 넘치는 모임으로 한국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회의는 이만신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임원들은 오전 서울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묘소에서 기도하고 헌화하였다. 양화진묘원에서는 한기총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경래 100주년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안내하였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개혁되어 민족 통일의 물꼬를 트는 사명을 한기총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암으로 투병생활에 고통 중에 있는 박윤식 목사를 위해 통성기도를

(1면에 이어서)

이날 개회예배는 총무 류홍중 목사의 인도로 총회장 홍재철 목사가 설교하고, 조경대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와 백기환 목사(중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영훈 목사(한기총대표회장)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총회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해, 한국 교계를 위해, 교단 발전을 위해 이승삼 목사(부회목서기), 송진숙 목사(부회계), 천관정 목사(영남노회장) 인도로 공동기도했고, 마지막엔 합심기도로 맺었다.

홍재철 목사는 설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예수님만 의지하는 교단이 되자고 역설했다. 또 자신을 향한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대 목사는 예상총회와 개혁총회가 통합을 이루어자고 통합제안을 했고 총대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개회예배 후 성찬식이 이어졌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회부가 시작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첫 창립총회는 임원선거 없이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추대된 임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박수로 환영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경직 목사는 이날 ‘류광수, 박윤식, 최삼경 목사의 이단 여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과 카톨릭과의 신앙직제일치의 관한한기총 입장을 요구하는 3개항의 긴급동의 안을 제출했다. 1. 「한기총에서 박윤식, 류광수 목사는 이단이라서 이단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박윤식 목사는 법원에 의해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었음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동총회가 류광수 목사,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운운하고 있다. 따라서 한기총이 박윤식, 류광수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

2. 합동 99기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정치부장 오정호 목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결의하였는 바, 한기총은 삼심론 및 마리아월경태론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있다.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3. 카톨릭과 신앙직제일치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을 밝혀 달라. 등 3개항을 제안했다.

긴급동의 안에 대해 총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에서 류광수 목사는 세번 조사했고, 박윤식 목사는 청원에 의해 조사했다. 두분다 충분히 조사했고 이단이 아님을 검증하고 확인했으며 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검증결과는 국민일보 등에 공개했다. 이 분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기에 한기총에서 이를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긴급동의안에 모두 찬성하고 한기총에 이를 공문서로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예상총회의 청원에 대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기총은 10월6일 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총회장 홍재철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박윤식 목사(85)라고 소개하고, 그 분이 중국에서 암병으로 투병생활로 고통 중에 있다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총대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경서교회 담임 홍성익 목사의 인사가 있는 후 폐회예배를 드리고 총회장 홍재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선출된 임원은 △총회장 홍재철 △부총회장 김경환 △서기 김수길 △부서기 김경환 △회록서기 이승삼 △부회록서기 성낙경 △회계 이필립 △부회계 김화인 송진숙 △총무 류홍중 김영만 등이다.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 원목위원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대한예수교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리로 100-18(신현동) 2층 로 회
☎ 053-752-8238
010-8537-8291

한국여목성장학술원 원장 박수영 목사 취임



박수영 목사
대구 행복샘교회 담임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구본부장



문화평 목사
21C목회성장연구소장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한국여목성장학술원의 4대 목표

- 1)비른 신학의 재정립을 통한 능력 목회 배양,
- 2)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성공목회 지향,
- 3)성령충만을 통한 영성배가,
- 4)목회현장의 실제 나눔을 통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한국여목성장학술원 박수영 목사와 사모

지도위원

- 장영일 총장(전 장신대 총장)
- 차영배 박사(전 총신대 총장)
- 문화평 목사(21C 목회성장연구소 소장)
- 이기복 감독(목원대 목회대학원 이사장)
- 원장 박수영 목사(현, 행복샘교회/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대구지사장)

- 등록금 및 수강료 : 1 학기 15만원
- 등록문의 : 032)614-9191, 010-4730-8771(정연주 목사)
- 매주강의 :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 장소 :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 (4층)제 1 연수실



예장합동보수 제99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연임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집된 총회로 회복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제99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25일(목) 오전까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가산동)소재 동천교회에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총회(시 13:1)”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현 총회장 이규필 목사(사진)가 만장일치 연임되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가 기도하고, 서기 임상국 목사의 성경봉독(시103:1~3)과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규필 총회장은 “합동보수총회는 연합 동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주신 총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회생하고, 양보해야 되며, 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생을 감수해야만 연합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이며, 성도의 연합이요 큰 비전을 갖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고 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집,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비울 때 연합되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연합은 회복인데 목회사역에 있어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 하지만 상처주어서도 안 되고, 상처받지도 말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약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한 후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로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어 조경일

목사(한중,증경노회장)의 기도와 서재식 목사, 김관호 목사가 분병, 분잔 위원으로 봉사했다.

3부 정기총회는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사회로 호남노회 김영국 목사의 기도로 회무처리가 진행되어 순서절차에 따라 임원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유임되고, 신임임원이 선출되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 신임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성광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신임부회록서기 박영석 목사(예본노회), 회계 송인섭 장로(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시온교회) 등이다.

한편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예전처럼 열심히 총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같이할 전도사 목회자들을 영입하는데 문을 개방해 놓았으며, 총회사무실과 총회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총대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며 총회발전을 위하여 비상하는 한 회기가 될 것을 믿는다며 취임인사를 했다.

정관이 있어야 함을 절감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교단발전위원회를 교단역사편찬 및교단발전연구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지난해 이탈한 일부 교회들이 교단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바른 신앙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총회장 권정희 목사)와의 통합을 위한 교단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천환 목사)도 구성했다. 양측 교단 및 신학교 관계자들은 이미 몇 차례 모여 교단 통합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장총회는 고려총회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에 맞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교단이다. 이 교단의 신학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1952년 성경학교로 시작했으며, 95년 학교를 완공하고 99년 대학원대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편 고려총회는 지난 회기 내용 가운데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고려총회 총회회관 개관 및 고려신학교 교사 입주 감사예배를 드리고, 세계적 권위의 고든콘웰신학교와 MOU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미주·유럽노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4월에는 교단 정체성 정립을 위해 ‘교회 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장, ‘근거없는 이단규정 불가’

합동, ‘조사보다 보복성 이단판정이 우선’

금번 장로교 정기 총회에서 기장, 합동 양 교단의 이단문제에 대한 결의가 눈길을 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장 황용대 목사, 이하 기장) 제99회 총회가 ‘데마성서연구원 이단성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부결시키고 1년간 추가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데마선교회 이명범 목사를 교주로 단정하고, 예수님의피, 예수님 이름을 반복적으로 감성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성 교단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적 종교집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교회로서의 이미지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집단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진력, 공교회들을 기만하고 있는 만큼 공교회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결론을 도출해선 안 된다”, “타 교단이나 종교 단체에 대한 이단 규정은 또 다른 분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총회는 보고서를 부결시키고 1년 더 조사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합동의 류광수 목사 이단문제 대응은 다분히 정치적 보복이었다.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가 ‘류광수 다락방 이단재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서재철 목사)’의 보고서에서 “류광수 다락방은 제8회 총회에서 이단 결의하고 제8회 총회보고서에 자세한 연구논문이 보고되었던 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신학적·도덕적 내용에서 돌아섰다는 그 어떤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도 현재까지 본 교단에 직접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단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제8회 총회 결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했다.

조사위의 당초 목적은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해제 한 것이 교단의 결의와 다르므로 ‘류광수 목사가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위가 모여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어떠한 신학적, 도덕적 조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들은 조사는 안하고 눈을 감은 채 누군가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주기를 바랐는가? 이들은 처음부터 조사할 의도가 없었고 합동측의 결의를 무시하고 한기총이 이단해제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정치적 보복을 할 것인가에 결론이 맞추어 진 것이다.

이들이 만약 류광수 목사에 대해 조사를 할려고 했다면 널리 널리 것이 자료이다. 류광수 목사측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위가 류광수 목사가 소속한 예장 개혁총회나, 류광수 목사를 신학 검증한 한기총 이대위에

단 한 번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 물론 류광수 목사 본인에게 조사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조사위는 류광수 목사에 대한 조사 노력을 처음부터 안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류광수 목사에 대해 신학적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류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될까봐 두려웠는지 아예 조사를 포기한 채 과거 결의 유효한 운운한 것이다.

이것을 보고라고 받은 합동 총회의 한심한 작태가 장로교 장자교단의 모습인 것이다. 81회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 과정역시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결의였음이 드러났고, 82회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연구 보고는 81회 결의를 신학적 논리로 포장한 아전인수격 문서일뿐 아니라 단 한번도 류 목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밀실에서 만든 이단 공작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합동에 정통한 언론인에 따르면 “류광수 목사를 복귀 시켜야 한다고 복귀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더니 류 목사를 복귀시키면 영남세력 커진다는 이유로 호남지방 노회들을 선동시켜 복귀를 방해한 자가 당시 서기행 목사였다”라는 말에 의하면 과거의 전력이 드러날까 노심조사를 하며 다락방을 이단으로 몰고가는 그 한심한 교단이 합동인 것이다.

기장총회가 비록 1년 더 연구하게 하였지만 이단 판정을 부결시킨 이유에 주목한다. 타 교단, 타 단체와의 분쟁을 유발하는 이단판정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마구잡이식 이단 남발이다.

한국교회에서 대체로 급성장한 교회나 단체는 이단시비에 휘말렸다. 멀리는 나문용 장로, 조용기 목사, 김기동 목사, 윤석전 목사, 류광수 목사, 이명범 목사 등이다. 이들 중에는 이단시비가 유야무야 된 자도 있고, 소천 후에야 이단문제가 풀린 자도 있고 아직도 이단시비에 휘말려 고통을 겪는 자도 있다.

이단이 된 자 중에는 성경적 해석 기준이 달라 이단이 된 자도 있고, 교리적 잣대로 이단시비에 걸린 자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교인 빼앗긴다고 패섬죄로 시작해 이단의 울무에 걸린 자가 류광수 목사이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이라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재 부흥을 위해 하루 빨리 이단 울무를 걸어 내야 한다.

윤광식 기자

「고려」총회장 천환 목사 재선출 ... 순장측과 통합논의

법과 원칙 확립하고, 내실을 기하여 화합과 발전의 단초를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총회장 천환 목사)가 22~23일 수원과학대학 신텍스에서 ‘작은 것이 자람이 되게 하라’(마 18:1~6)는 주제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교단 지도자의 도덕성 논란과 그로 인한 일부 교회의 이탈로 아픔을 겪었던 고려총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교단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내실을 기하며 화합과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총회장에 천환 목사(경인노회·예일교회)가 재선출됐다. 부총회장 원원호 목사(서울북노회), 서기 이성용 목사(중부노회), 부서기 김관태 목사(서울남노회), 회록서기 이동준 목사(서울남노회), 부회록서기 오성재 목사(서울북노회), 회계 손정를 장로(서울남노회), 부회계 이재준 장로(중부노회), 총무 김장진 목사가 각각 당선됐다.

투표 직전 “저보다 더 덕 있는 분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던 천환 목사는,



당선이 확정되자 “나서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그러나 그저 욕먹지 않기 위해 전열을 이탈하지는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며 “2년차 임기 동안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대원들께서 더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천환 목사는 “해외 선교 뿐 아니라 국내 교회 개척과 자립도 향상에 힘쓰며, 자성과 화합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며 “한두 사람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성경적 원칙을 확립하는 총회가 되자”고 했다.

그는 앞서 개회예배 설교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걸로 볼 때는 엄청난

커졌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이 본질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남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려총회는 이번에 교단 정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정관은 노회 수의를 거쳐 다음 총회 결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교단 측은 “총회에 이미 법규와 규칙이 있지만, 안팎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교단과 교회를 지키고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예장웨신총회 제99회 성 총회 성료, 탁구대회 ‘우승’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을 위해 지난 9월 17일 오전 11시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 후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웨신총회는 직전총회장 이흥규 목사를 비롯 총회장 이영봉 목사, 총무 신연창 목사 등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모범을 보인 가운데,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원들은 열띤 응원전을 보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탁구대회에 앞서 웨신총회 부총회장 조강수 목사가 축사를 했으며, 웨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형용 박사가 참가해 축사를 전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사진으로 알립니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부총회장)



인생의 여러고성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오직 높고 끝이 없는 무거운 성곽만 보일 뿐

그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여러고성에 서있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

아무런 계획도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명 감당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을 수 있는데
미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여러고성을 바라본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뿐이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랬었지 여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인생의 여러고성 앞에서 나에게 다시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옛날 여러고성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매일 반복되는 찬송, 말씀, 기도, 찬송, 말씀, 기도 속에서 때가 되면

나의 인생의 여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확신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며
성전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할 때
길가에 흘러난 노요란 은행잎이 무척이나 아름답기만 하다.

시 조강수 목사

제64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 성료

비상총회 시 사용된 교단명칭 ‘개혁고려’ 를 ‘고려’ 로 사용한다 결의

제64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가 지난 9월 23(화)부터 24일(수)까지 고려신학교 아카데미캠퍼스에서 140여 명의 목사와 장로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진력하게 하소서’(갈 6:9)라는 표제 아래 진행되었다. 개회예배는 9월 23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총회장 서상일 목사의 사회와 ‘선한 일을 위하여 진력하게 하소서’(갈 6:9)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이현상 목사의 기도, 회록서기 안홍수 목사의 성경봉독, 고려신학교 신학원 찬양대의 찬양, 김태운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후 진행된 회무처리 시간에는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규칙통과, 투표위원 선정, 임원선거, 신규임원 이취임, 꽃증정, 공헌부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정회하였다. 둘째 날은



중부노회장 배달삼 목사의 인도로 새벽예배를 드렸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이후에 회무처리가 계속되었다. 경과보고를 통해 총회 각부의 보고와 노회별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기타 각종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총회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칙(직전총회장을 역대총회장으로 수정하고 신학교교장 삼임)과 목사 칭호(제2장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수정)와 임시목사의 권한에 대한 제1항을 수정하고, 호남노회 명칭을 서남노회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서울남노회에 속해 있는 경인지역의 교회들을 경인지회로 분류하는 헌의안을 결의하였다. 또한 비상총회 이후 사용하던 교단명칭인 ‘개혁고려’ 를 ‘고려’ 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모든 회무를 처리한 후에는 신임총회장 홍복두 목사의 사회, 부총회장 배달삼 목사의 기도, 홍복두 목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마 25:31-46)라는 제목의 설교로 제64회 총회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폐회되었다. 고려총회 제64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홍복두 목사, 부총회장 배달삼 목사, 총무 박영철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부서기 오기정 목사, 회록서기 표성철 목사, 부회록서기 고일근 목사, 목사 회계 조영환 장로, 부회계 이 정 장로 등이다.

세주협 제9차 총회열고 신임대표회장 주은총 목사 당선

2박 3일 동안 부흥사 연수 및 세미나를 열고, 제9차 정기총회 가져

세계주영광부흥사(이하-세주협)는 “성령의 불길은 온 세계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목표를 주제로 모두가 앞서 전진하는 부흥사회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부흥사 연수를 가졌다. 또한 세미나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한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wig는 데 역할을 두고 하나가 되자며 한층 분위기가 업되었다. 2014년 영수 및 세미나, 또는 제9차 정기총회가 지난날 25~27일 내리교회(담임 김철수 목사) 총남 태인군 이원면 439-42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민 목사(등불교회 담임, 대표회장)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회에 전념하며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단련하여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숙목사를 단



장으로 한 꾸미오리의 위신팀의 찬양과 오선영 목사의 특별연주가 은혜가운데 진행되었다. 아울러 총재 이재갑 목사(빛과 소금교회)는 “부흥사의 leader ship은 배우고 훈련되어 책임과 사랑과 섬기는 것”라고 했고, 하종우 목사(부총재)는 “부흥사의 자세와 유의점을 통해 발전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원 목사(부총재)는 “우리 몸예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바울 목사(참복교회담임)는 “참지기적 자세와 자부심을 가져라”고 했고, 또한 이춘우 목사(주세움교회)는 “새벽부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시다”고 했다. 둘째 날 전진성 목사

(강사단장)는 “제자사역에 있어 괴로움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한 영혼의 목회를 하라”며 강의를 하는 등, 이어서 오세승 목사 순으로 강의는 이어졌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회는 이날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 동안 본 협회를 힘써온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대표사역을 끝으로 아쉬움과 미안함을 뒤로하지만

믿고 의지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철저한 야전 군인들처럼 양성되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제9차 신임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주은총 목사(영광교회, 은총기도원)는 “탈거진 사역에 본협회가 세계적인 부흥협회로 성장하는데 있어 한 알의 밀알이 되는데 밀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예장(한영)총회, 신임총회장 오세호 목사 선출

대한예교장로회한영총회(이하-한영총)는 총대 225명 중 위임자 4명을 포함한 175명이 참석하여 한영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제99회 성총회가 실시되었다. 한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목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말과 행동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

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희망과 소망 속에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총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예장한영총회는 제98회기에 한영훈 총회장을 한교연 대표회장으로 배출한 총회로서 자부심을 갖고 제99회 성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당선된 오세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한영총회를 위해 헌신할 제99회기의 주요 방안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총회와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인사했다. 1. 노회활동 활성화를 통해 노회연합활동 지원 방안 마련, 2. 해외 선교사 활동에 행정적 통일성과 지원확대, 3. 교역자 목회를 위한 정보교류와 재교육 방안 마련, 4. 한국교회연합 사업에 적극 동참, 5. 후학들을 위

한 신학 교육 사업에 역점, 6. 총회와 노회의 통일된 행정바탕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소임을 밝혔다. 다음은 한영총회 제99회기 임원으로 당선된 명단이다. 총회장 오세호 목사(해브론교회), 부총회장 남궁선 목사(대 학교교회), 서기 김천수 목사(대 학교교회), 부서기 최규석 목사(해남벤엘교회), 회록서기 이영열 목사(오아교회), 부회록서기 신상철 목사(복있는교회), 회계 박영애 목사(생명성교회), 부회계 최남숙 목사(한샘교회), 총무 김명찬 목사(면목제일교회)이며, 감사 이영희 목사, 최정현 목사 등이 선출되었다. 한편 예장한영총회의 특기사항은 교단 통합위원회 특설기구로 발족되어 교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위해 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험에 알파를 더해 더 열심히 뛰겠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제23차 총회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 앙교회에서 열려 이명구 감독(반석중앙교회)을 신임감독으로 선출하고 복음을 전하며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기로 했다. 이 감독은 “이전에 감독직을 수행한 바 있지만 지금의 예감은 이전과는 달리 많이 성장하고 위상도 높아져서 그만큼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경험을 되살리고 알파를 더해 예감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감독이 되겠다”하고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저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찬식 후 손선영 감독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하의 설교, 양해자 목사의 봉헌기도, 신신목 감독의 축도로 진행됐다. 제23차 예감 신임원은 △감독 이명구 목사 △회계 최영철 목사 △부회계 정효근 장로 △서기 조

한경 목사 △부회계 박미순 목사 △총무국장 최영철 목사 △전도국장 김대덕 목사 △교육국장 최창규 목사 △사회국장 한석호 목사 △부녀국장 유현분 목사 △청소년국장 신광근 목사 △재산국장 이주방 목사 △선교국장 윤상진 △은급국장 이범식 목사 △신학교 이사장 김창기 목사 △신학교 학장 조경행 목사 △신학교 대학원장 신신목 목사 등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천교회

www.inamhyun.org

“2014년 동여”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는 교회

훈련사역에 앞서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서는 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전도

2. 전인적양육

3. 사랑의공동체

4. 감격의예배

5. 기쁨의봉사

6. 즐거운교제

7. 능력의선교

부교역자

부목사 김성철(010-3344-7204)

최성일(010-8802-0277)

이정환(010-7192-9749)

최영민(010-3062-4665)

고두빈(010-9862-2046)

서정환(010-9066-6592)

윤영배(010-9895-8277)

찬양목사 이인철(010-8727-6167)

전도사 손원경(010-5245-4662)

정의현(010-5475-0004)

김요한(010-5048-9622)

교육전도사 서은형(010-3785-7990)

김광희(010-7103-9129)

임상규(010-6474-0701)

파송 선교사 김상식, 이상진(필리핀)

김정우, 박은원(인도네시아)

방송간사 유호준(010-2012-0807)

시무장로 및 협동장로

■시무장로

강성재 이선호

임승수 정현웅

김대용 장연호

정영수 이환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학 김상근

김문하 나현영

지윤섭

■은퇴장로

배재호 정향철

황이만 정향규

■협동장로

김태일 윤방식

염익범 심성길

김홍기 조성덕

찬양지휘자 및 반주자

찬양지휘 김성강 윤석민

류현주 배영혜

오케스트라대장 최충남

피아노 서혜원 김현미

김서진 이태리

오르간 이지영

신디 장은경 김소희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10시 30분 대림교회

2부 주일 12시 30분 대림교회

3부 주일 1시 30분 대림교회

주말 저녁 예배

1부 주일 6시 30분 대림교회

2부 주일 8시 30분 대림교회

주요 예배

주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예배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5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6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7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8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9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0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1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2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3시 30분 대림교회

수요일 4시

한교연 회기변경 12월 2일 총회 개최

정관개정,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9월 29일 오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중앙당에서 제3-9차 임원회 및 제3-3차 실행위원회, 제3-2차 임시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1월말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를 12월 첫 주간에 개최하기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제3-9차 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회는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 박위근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직전대표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차기 대표회장 후보가 속한 가군을 제외한 공동회장 중 6인을 대표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 명단.

▲선거관리위원장 : 박위근 목사(당연직), ▲위원 : 이신웅 목사(기성) 박영길 목사(개척) 최순영 목사(대신) 이종복 목사(예성) 함동근 목사(기하성 서대문) 강진문 목사(한영)임원회는 또한 지난 제3-8차 임원회에서 논의한 정관개정

안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발의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제3-3차 실행위원회, 전 사무총장 해임 재결의

오후2시30분에 개최한 실행위원회는 임원회가 발의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운영세칙과 선거위 규정을 가결해 임시총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임 여부에 대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투표인수 72명중 해임 찬성 6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해임이 재 가결되었다.

실행위는 또한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제3-2차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등 가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승인했다.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대표회장 다. 재임기간 중 중급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한다. 다. 보선은 직전대표회장이 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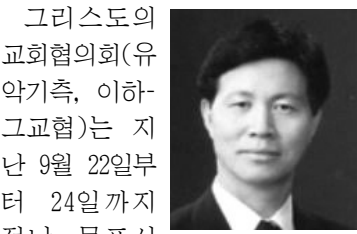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한국교연의 모든 회의에 솔선수범해 참석함으로 귀감이 된 임원 5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국경 목사(공동회장), 송금자 목사(공동회장), 김바울 목사(공동회장), 김일출 장로(법인이사), 안경순 목사(법인이사).

총회, 12월 2일 확정, 한편 정기총회를 12월 첫째주간에 개최하기로 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4회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교협, 제79차 총회 신임회장 신봉수 목사

여성목사안수 · 성직 정년 제정 안건 부결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유약기측, 이하-그교협)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목포시 목포그리스도의교회에서 '인자야 생기를 대언하라'라는 주제로 제7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봉수 목사를 신임회장에 추대하고 교단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이하-그교협)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그리스도의교회(담임목사 신봉수)에서 제7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봉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5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는 최근 새롭게 계획된 '2016년 그리스도 세계대회'의 추진을 인준했다.

총회 이튿날 임원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에 선출된 신봉수 목사는 "초대교회 복음정신을 바탕으로 환원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우리 교단은 진보 보수를 구분치 않고,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목사 제1부회장에는 임종원 목사, 제2부회장에는 신조광 목사, 장로 부회장에는 단독후보로 나선 공창호 장로가 당선됐다.



다. 반면 총무선거에서 현 총무 엄만동 목사가 연임됐다.

이날 그교협은 지난 74차 총회 시 5년간 연구 후 결정기로 했던 여성목사안수 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다시 논의 되었으나 결국 부결됐다. 게다가 정관개정위원회가 성직의 정년을 정관에 삽입하지는 안건이 발의되었지만,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성직자 정년제도 역시 부결되고, 추후 다시 의논키로 했다.

그교협은 2016년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가 미국 월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준비해 오던 것이 세계대회 회장 이강평 목사의 사표로 한국 그리스도교회의 자체적인 세계대회로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날 이강평 목사가 사과하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 혼란이 일단락 됐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신봉수 목사(목포교회), 목사1부회장 임종원 목사(명문교회), 목사2부회장 신조광 목사(보람교회), 장로부회장 공창호 장로(홍은 임마누엘교회),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연임), 협력총무 주경림 목사(해남교회), 신동식 목사(예수소망교회), 채진구 목사(강원교회), 김용강 목사(청주중앙교회), 박우삼 목사(주사랑교회), 서기 정병기 목사(새빛교회), 부서기 이상구 목사, 회계 강보석 목사(은광교회), 부회계 오순환 목사(샘물교회), 회의록서기 권상훈 목사(새소망교회), 부회의록서기 김천국 목사(시온교회) 등이다.

예장(정통)총회 제50회 정기총회

설립 50주년 맞는 정통총회 깨어있는 총회로 굳게 서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가 합동석 박복경 목사에 의하여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아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감사예배 및 기타 행사를 가졌다.

2014년 9월 22일-23일 양일간 제50회 정기총회를 갖고,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감탄산기도원 원장)의 기도와 총무 이대용 목사가 성경 롭 13장 11-14절을 봉독, 김병섭 목사의 색스폰 축하연주가 있었다.

총회장 양정섭목사는 "시기를 분별하는 총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제상이 온통 혼돈되고 가짜가 진짜이듯 판을 치는 이때에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정통총회가 될 것을 역설하고, 안일함속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 잠에서 깨어 어두움에서 벗어날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웃을 입고 무장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

전을 소멸하고 승리하는 정통총회와 총대들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부총회장 김인호 목사의 봉헌기도,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까지 말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

제2부 제50회 정기총회가 이광복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서기 강철원 목사의 총대보고와 의장 양정섭 목사의 개회선포가 있었다. 이어 식순에 따라 전 회록당독과 각 부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임원선거에 들어가 총회장 양정섭목사(유임), 부총회장은 김흥룡 목사, 이영춘 목사, 양성국 목사, 김인호 목사, 정우인 목사, 양성은 목사 등이 추대되었으며, 이어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이대용 목사, 부총무 이광복 목사가 유임되고, 협동총무 한세전 목사, 김두경 목사, 서기 강철원 목사, 부서기 전대식 목사, 회의록서기 현준호 목사, 부회의록서기 조익수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임병선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등이 유임됐다.

신 안전토의에서는 사업안과 예산안 등이 가결되고, 회의록제택은 차후 보고하며, 기타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 한 후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고전 4장 1-2절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성총회 일정을 폐회했다.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제31차 정기총회

총회장 안영권 목사를 비롯하여 전 임원 유임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제31차 정기총회가 22일과 23일 대전복음교회에서 열려 총회장 안영권 목사를 비롯하여 전 임원을 유임시켰다.

'지금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심의되고 결정됐고, 교단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단발

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이창우 목사, 최충규 목사, 안영권 목사, 이광수 목사, 고금표 목사, 김효구 목사, 조규형 목사를 선정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학교명에 있어 혼란을 빚는 다며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를 '건신대학원대학교'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연구와 공청회 등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본래의 명칭을 고수하자는 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음총회 사회부에서는 담임목회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할 경우 가입자 50%, 사회부에서 5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총회 차원에서 개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안영권 총회장은 "지금 총회는 기도운동과 해외선교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총회를 통해 사중복음으로 부흥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20:12) 김평호 목사 부흥성회

(치유 · 예언 · 회복 · 응답 · 축복)



김 평 호 목사

-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회장
- 열두광주리교회(기도원) 담임
- 한인족리바이벌협회 부총재
- JTNTV방송(신문사) 상임이사

● 김평호 목사 부흥회 일정 ●

9월 8일~11일	열두광주리교회(제117차)
9월 20일	양평금식기도원
9월 22일~25일	포천호렙산축복금식기도원
10월 6일~9일	열두광주리기도원(제118차)
10월 13일~16일	홍천물탄동산기도원
10월 20일~23일	불기둥기도원(연합성회)
11월 3일~6일	열두광주리기도원(제119차)
11월 10일~15일	필리핀 툰통인 가나안교회
12월 8일~11일	열두광주리기도원(제120차)
12월 22일~25일	포천호렙산축복금식기도원

- 매주 토요일 목회자구국기도회 찬양 (의정부 행복한국교회)
- 열두광주리기도원:매월 첫 주 성회
- 2014년 성회집수증

김평호 목사 010-8411-0191
033-263-6975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1-4



예장(정통)총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정통총회 설립 50주년

■ 깨어있는 총회로 굳게 서자



△총회장 양정섭 목사

△부총회장은 김흥룡 목사, △이영춘 목사, 양성국 목사, 김인호 목사, 정우인 목사, 양성은 목사,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이대용 목사, △부총무 이광복 목사(유임), △협동총무 한세전 목사, 김두경 목사, △서기 강철원 목사, △부서기 전대식 목사, △회의록서기 현준호 목사, △부회의록서기 조익수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임병선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성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지저스타임즈 창간 제9주년 공고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창간 9년을 맞이하여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에서 오는 10월 24일(금) 오전 11시 감사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며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부천)전원중앙교회
- 주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9-5.
- (http://www.gardenchurch.org/)
- ☎전화: 032-321-9101, 010-2956-9191

*자세한 것은
직통: 010-5468-6574(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안내: 010-2080-0651(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간사: 010-2258-1398(이유경 집사)
*후원 및 찬조: 농협/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총 재: 이효은 목사
이 사 장: 정기환 목사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사 장: 소진우 목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2014년 10월 6일

■ 요한계시록 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2)

〈자나호에 이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으로 영원자존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 곧 독생자가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세계입니다. 이 생명세계 이후 신령계가 창조되었습니다. 낙원도 지어지고 하늘나라의 환경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생명의 아들들의 영을 지어 아들의 영으로서 하늘 위에서 살게 하였고, 불택자의 영, 천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물질계 위의 영물세계와 또 그 이전의 생명세계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근원부터 다 섭렵하고 꿰뚫어 아는 요한이 되고 있기에 계시록을 소화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의 영적 생활하는 것을 보아야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다음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 안에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히바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다보면 영안이 열리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체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의 눈이 떠져야 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일곱 영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세계가 열리고 그 생명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한이기에 그 생명으로 최고로 충만케 하는 결론서인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을 요한과 같이 깨달으려면 요한과 같은 아주 높은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명의 눈이 열리고 생명세계 안에 근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생명세계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오메가적인 것을 꿰뚫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요 13:23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11제자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한 사람 요한뿐입니다. 그가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읽어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흥협 부총재



말에까지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 “네 어머니를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요한과 마리아의 영이 산 자임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1000도 되는 기를 가마에 들어가도 기를 온도와 비교도 안 되는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생명씨개 안에 쌓여 있듯이 있게 됩니다. 밋모섬에 유배되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요한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환란 날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러한 극심한 환란의 광경을 보고 힘이 빠지고 두렵고 떨려서 몇 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니엘과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시록을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과 고난과 무서운 광경들이 전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로 능히 이기고 소화하여 깨달아 알아서 증거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깨달으려면 이러한 각도로 맞아야 되고 요한과 같은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가 무슨 뜻인지 한글역본과 영역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그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헬라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자”의 헬라어(호 아나기노스콘)의 문법형태는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는 사도요한과 똑같은 분량으로 보고 깨달아서 읽는 자인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읽는 자는 한 번 읽어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주는 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1절의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읽는 자” 단수 한 사람이 “그의 종들” 모두가 세워지기까지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계속 읽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읽는 자를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듣는 자들”의 헬라어(호이 아쿠온테스)의 문법형태는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계시록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 듣는 자들로서 그 수는 복수로서 한량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마에 인침 받은 하나님 종들의 수를 가리킵니다.

“읽는 자” 단수 한 사람에게 의해 듣고 은혜 받은 그 누군가가 읽는 자의 자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으로서 그에 의해서만 계속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읽는 자에 의해서 들은 말씀은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믿어져서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지키는 자”의 헬라어(테론테스)의 문법형태도 “듣는 자들”의 것과 동일합니다. 들은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 처음들을 때부터 계속 현재적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지켜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서 그 수가 많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 20:16의 부활하신 주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현재형으로 “마리아야”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으로 계속 주님이 “마리아야”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각각의 이름을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적으로 계속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이미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된 자가 되어 옛사람인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죽음이 없는 산 자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사망권세가 최고의 권세인데 산 자는 부활의 권세로써 모든 권세를 다 이긴 것이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수영 목사 한국 여목 성장 학술원장 취임예배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소장 문화평 목사 원장 박수영 목사

한국여목성장학술원 개강 및 박수영 목사 원장 취임식 감사예배가 9월 11일(목)오후 1시 백주년기념관(제1연수실)에서 이정웅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지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이마소 목사가 성경봉독(고전 4:2 절)을 하고, 최영길 목사는 “표비에 충성이라고 습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윤영숙 목사가 봉헌기도를, 사회자 이정웅 목사가 취임하는 박수영 목사를 축하고, 원장취임사가 있은 후 문화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여목성장학술원 원장으로 취임한 박수영 목사(대구 행복샘교회)는 부족하지만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짐했다. 사람이란 본래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무언가 가치적 성취와 이에 걸맞은 인정과 보상을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존재인데, 하지만 목사는 아무리 오랜 사역을 해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자기성장이나 발전도 없고, 합당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고역과 불행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사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고, 사역에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기에 종종 교인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해 급기야 교회를 떠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전문가가 된다고 말하지만, 목회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목사는 부르심이고, 목회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목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나 어떤 일의 전문가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대신, 세상 지혜, 세속 권세로 강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대체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시대는 목사는 많으나 목사다운 목사가 드문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목회를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또한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다. 진정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종이 되어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면서, 비록 더디어도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이 빚어 가신다는 것이었다. 한국여목성장학술원을 통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서 지구촌 열방을 교구로 삼는 주역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취임인사를 했다.

한국여목성장학술원은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남성 목회자들도)들도 수강이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본 학술원은 한학기 12주 과정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익한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강의를 한다고 했다. 또한 본원은 설교, 전도, 특수목회, 교육목회, 행정목회, 부흥사의 자격과 훈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본원의 4대 목표는 첫째 바른 신학의 재정립을 통한 능력 목회 배양, 둘째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성공목회 지향, 셋째 성령 충만을 통한 연성배가, 넷째 목회현장의 실제 나눔을 통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를 정해 놓고 수강에 들어갔다.

이날 문화평 목사(21C목회성장연구소 소장)는 “교회성장과 부흥을 추구하는 목회자! 최선을 다해도 부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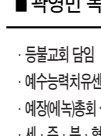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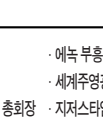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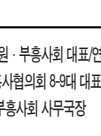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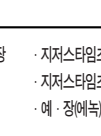
안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열심히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회자! 목회가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목회진로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목회자! 등을 위하여 한국여목성장학술원을 개강하게 되었으며 많은 분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선교시대 즉 가장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라면서 요엘선지자의 예언대로(요엘2:28-30) 하나님은 수많은 남·여종을 부르시어 성령의 기쁨부음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때라고 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목회자를 향한 기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최고의 교육기관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목회자로 새롭게 세움을 입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관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 여목 성장 학술원을 개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한국 최고의 교수진과 많은 동역자들과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과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영일 총장(전 장신대 총장), 차영배 박사(전 총신대 총장), 문화평 목사(21C 목회성장연구소 소장), 이기복 감독(목원대 목회대학원 이사장), 원장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 등이다.

한편 등록금 및 수강료는 한 학기 15만원이며, 등록문은 032)614-9191, 010-4730-8771(정연주 목사),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강의 장소는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4층 제 1강의실이다.

에녹 부흥 신학원

대표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박영민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범 목사	 김명세 사모
교수진			
 임태우 교수	 박병모 교수	 박성준 교수	 임명준 교수
 김상숙 교수	 한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임선우 교수

■ 광영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신학원 부총재의 대표전수원장
· 에녹신학연구원 원장
· 세계주요명부흥사협의회 8대 대표회장
· 에빙에총회 설립자초대 총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의 사무국장
· 세 주 부흥부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에빙에총회 인천노회 소속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시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2시(학술원)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에녹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매주 금. 토 오전10:00부터~
“물찬양(무용,국악,찬양)매주(목)오전1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총현교회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들어
 ‘말씀에 이만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 축복하소서’
 (교후 1:18-20)

나의 형제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성에서 믿음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롭 사람하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의회의 총재)

사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형

‘나도 절되고 자손도 절되자’
 1.예배의 삶에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호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일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일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말~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길

<도시점> (도시점) 85-1 교양동 -- 송정전철역 850 교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외곽점> 85 교하 -- 서울역 8000 내원동 -- 신촌 8000 교하 -- 서울역 8000 내원동 -- 신촌 (지하철)

82 내원동 -- 영동로 1900 본원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가량)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예배 시간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창립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차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러이집 (02-464-310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157-88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화곡동, 호용B/D
 전화 : 02)2608-2190, Fax : 02) 2608-2191
 Email : hankibo@naver.com

교단 탈퇴 공고

한국독립교단 · 선교단체연합회를 2014년 7월 10일자로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전태경 목사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에배 드려

한기총 스포츠위원회가 주최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성공기원 2014전국목회자탁구대회를 4,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7일 오전8시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체육관에서 드렸다.

정춘모 목사(한기총 총무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기총스포츠위원장 김진욱 목사(한기총스포츠위원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화평 목사(한기총 총무협의회 부회계)의 성경봉독, 학2:19를 본문으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주제로 한은수 감독(한기총 부회장)이 말씀을 전했고, 특송에는 이수범 목사(새소망교회), 김원도 경경감독(예수교 대한감리회웨슬레총회)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 개회식 8시30분부터 사회 김홍성 목사(한기총 총무협의회 부회장), 대회사 이영훈목사(대회장, 한기총대표회장)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격려사 지 덕 목사(한기총 중경회장), 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 스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경기진행설명은 손은숙 선수(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탁구위원회), 선수선서는 박창영, 김진욱 목사(한기총스포츠위원회위원장)개회선언이후 김진욱 목사(한기총스포츠위원회위원장)와 양영자(전 탁구국가대표, 88올림픽 금메달)선교사의 시구로 오픈을 알렸다.

3부 폐회식은 이주태 장로(한기총스포츠위원회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폐회식은 김하인 목사(한기총 마약퇴치 특별위원장), 시



상식은 한기총 총무협의회 총무진인 김영완·박진섭·서승원·송재량·신언창·이병일·이영욱·이재택 목사, 이영풍(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장), 이홍규(직전총회장), 류한상 목사(한기총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진행

성적순위(개인단식경기)-우승(할렐루야부) 류종석, 준우승 김용, 공동3위 심재상, 윤해경 5위~8위 문혁순, 이수범, 백경현, 이영분(임마누엘부) 류재영, 준우승 박정향, 공동3위 유순길, 황남길, 5위~8위 김영완, 김홍근, 서창희, 한혜숙(넋시부)우승 김정인, 준우승 김경환, 공동3위 이현정, 박춘옥 5위~8위 김성철, 김창남, 김창지, 강일만

복식경기-우승(할렐루야부) 이종규·백경현, 준우승 박현수·주할레나, 공동3위 이석용·이수범, 김용·문혁순(임마누엘부) 우승 유순근·이현정, 준우승 박춘옥·이현숙, 공동3위 이현두·김정인, 정서영·강선희 성적으로 마쳤다.



윤항기 목사 CCM신곡 '걱정을 말아요' 발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55년차 스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며 신나는 드럼과 기타, 키보드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노래를 신명나게 부른 뒤 두 손으로 하트를 크게 그리자 관객은 환호성을 질렀다.가수 겸 목회자 윤항기(71·예음교회 담임) 목사는 데뷔 55주년을 맞아 29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예음콘서바토리에서 쇼 케이스를 갖고 CCM 신곡 '걱정을 말아요'를 발표했다.그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예음콘서바토리에서 쇼 케이스를 가지면서 CCM 신곡 '걱정을 말아요'를 소개했다. 1986년 음반 '헬컴 투 코리아' 이후 29년 만에 내놓는 신곡 '걱정을 말아요'는 윤 목사가 멜로디를 만들고 아내 정경신씨가 노랫말을 붙였다. 음반에는 신곡 이외에 '여러분' '노래하는 곳에' '나는 행복합니다' '친구야' '이겨야 정말' 등 기존 발표 곡가



지 총 13곡이 실렸다.윤 목사는 "경쾌한 멜로디의 '걱정을 말아요'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라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 응원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고생 끝에 "가수왕이 됐을 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

로 들어섰다"고 간증했다. 그는 "여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59년 미8군 무대에 서면서 가수활동을 시작한 윤 목사는 60년 해병대 군악대를 거쳐 64년 한국 최초의 록그룹인 키보이스를 결성했다. 이어 70년대까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장미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겨야 정말' '해변으로 가요'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하지만 86년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공부를 한 뒤 90년 목사가 됐다.가수 윤복희(68) 권사의 오빠인 윤 목사는 여동생의 최대 히트곡 '여러분'의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시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 찬양앨범도 여러 개 냈다. 지난 22일 예장개혁신예을 초대 총회장에서 물러난 윤 목사는 현재 예음음악신학교 총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올해를 끝으로 교회 담임목사직도 내려놓는다.이날 행사에는 작곡가 김희갑 선생을 비롯, 서수남 서유석 태진아 최백호 이영화 장미화 김국환 자니리 김홍탁 유현상 등 성후배 동료 연예인들과 목회자,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목사는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찾아온 쇼 케이스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늘 기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 기존 쇼 케이스 같지 않고 미니콘서트 같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대신-백석, 총회 결의 및 추진전권위 합의 재확인

양 교단 총회장 19일 회동, "통합 반드시 성사"

전권위원장 최순영 전 총회장 역할에 대한 기대 높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전광훈 목사)가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예정 백석과의 통합총회를 오는 11월 말에 개최하기로 전격 결의한 가운데, 양 교단 총회장이 회동을 갖고 총회 결의와 통합추진전권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오전 방배동 백석총회 본부에서 만난 양 총회장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단 통합을 이루자"는 기본 원칙을 나누며, 인간적인 조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대화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역사적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김치선 목사님의 교회 개혁 정신과 건강한 보수신학을 바세기 가까이 이어온 대신총회와 통합의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 교단이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총회, 복음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대신 전광훈 총회장도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백석의 포용력을 배우게 됐다"며 "두 교단의 통합이 장로교 연합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단을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교단은 49회 총회 결의와



통합추진전권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을 확인했다. 교단과 신대원, 역사와 회기, 총회 임원 구성 등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총회 기간 중 생긴 오해를 풀고 교단 통합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전광훈 총회장은 "총회 결의 후에도 교단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교단 안팎의 존경을 받는 최순영 직전총회장을 통합전권위원장에 추대했다. 그리고 그동안 통합추진전권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박재열 목사님이 통합에 대한 대의를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나와 최 목사님이 통합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총회 임원회와 통합전권위원회가 은혜롭게 교단 통합을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

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측은 지난 회기 총회장으로 섬기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온 최순영 목사가 통합전권위원장에 추대된 후 의욕적으로 교단 통합에 나서고 있어 후속 절차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전 총회장은 또 "우리 총회에 오해가 없도록 반대 목소리까지도 백석이 넉넉히 받아들이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총회장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또한 대신과 백석은 같은 교리와 신학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왔다. 이제는 하나되어 한국 교회를 섬겨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교단통합을 통해 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는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실천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통합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리자녀 천재로 만들기 프로젝트!!

『CTS 유대인 자녀교육 전국세미나』개최!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오는 10월 14일(화) 울산서현교회를 시작으로 15일(수) 부산팔광교회(김운성 담임목사), 16일(목) 창원세광고교회, 17일(금) 목포주안교회를 순회하는 유대인 자녀교육 전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자녀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유대인 교육 <테벨린>의 저자인 김형종 미국 코넬대학교 부총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CTS 유대인 자녀교육 세미나>는 유대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녀교육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래와 정신 △ 성공한 유대인들 △ 유대인이 천재교육 실천하기 등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CTS 관계자는 "유대인 자녀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말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이론만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을 직접 적용해 보고,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 대상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사전접수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수강료는 1인당 1만5천원이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연락 및 문의 : 02-6333-2500)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목사 이이중

제일교회

장로 : 신 호 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기독교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에배 오후 2시
수요일에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궤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치현 원장

부석/장기 요양원 정동진 회맹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 서명범 목사

공 덕 교 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경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궤완근 목사
(신복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은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지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정결한 입술

성경: 잠언 12장 9-13절 찬송가 264장

악하고 무익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말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37)고 하셨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도의 복음

성경: 잠언 12장 14절 찬송가 520장

성도의 복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뒤따릅니다. 곧 하나님만 진실되게 부르짖는 입술에는 언제나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꿀 골짜기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심부름꾼은 언제나 물질적 보수도 얻게 되며 이것은 그의 상급입니다. 충실한 복음의 심부름꾼들 되셔서 풍성한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리의 파수꾼

성경: 잠언 12장 15-17절 찬송가 358장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꾀술을 말하거나 거짓을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지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속이는 말은 일시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실한 입술

성경: 잠언 12장 18-19절 찬송가 197장

악담에는 독한 살기만 있을 뿐이지만, 진실한 말에는 생명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인내와 고난 속에서도 '근면과 협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에는 심령이 항상 즐겁고 상급이 있으며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한 언행

성경: 잠언 12장 20-25절 찬송가 189장

민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따라서 생활의 단정함이 있고, 선한 말에 힘쓰며 진실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말로써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언행으로써 즐거움만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지런한 성도

성경: 잠언 12장 26-27절 찬송가 496장

성도는 범사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세상 일 뿐 아니라 주의 일에도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도 그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고 교훈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물론 주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한 충성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의로운 길

성경: 잠언 12장 28절 찬송가 357장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으며 사망이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의는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 분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목: 훈계를 듣는 자

성경: 잠언 13장 1절 찬송가 285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분의 훈계를 달게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야 합니다.

제목: 성결한 성도

성경: 잠언 13장 2-6절 찬송가 191장

거짓은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는 곧 죄악입니다. 죄악은 악취와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동이나 거짓말은 일시적인 형통은 있으나 곧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반열에 선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어떠한 권모술수와 꾀술 그리고 가식도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6절).

제목: 진정한 부

성경: 잠언 13장 7절 찬송가 218장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한 체 하는 사람은 허영심, 명예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면 인색한 자가 되겠지만 외식과 허영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과 허영으로 살지 마시고 이기적이 아니라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물의 유혹

성경: 잠언 13장 8절 찬송가 214장

우리는 재물로 인한 사치와 탐심과 허영의 속성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되심을 믿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 내일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과 순종함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목: 의인의 빛

성경: 잠언 13장 9절 찬송가 502장

의인의 빛은 의인의 선한 표본입니다. 이런 표본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됨으로 나타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비추며,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바로 십자가의 빛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생명의 길인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소금 역시 음식물의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겸손한 성도

성경: 잠언 13장 10절 찬송가 212장

본문은 교만에서는 다름만 일어난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오직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긴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옳은 권면 즉 경건하고 도덕적인 권면 또한 잘 듣는 여러분 되실 때 지혜로운 성도로서 분란을 피하는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성실히 얻는 재물

성경: 잠언 13장 11절 찬송가 213장

본문에서 '망령되어 얻은 재물'이란 뜻이며, 즉 성실하게 일하여 번 돈이 아니라 게으르게 또는 부도덕하게 얻은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부

도덕하게 얻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성실히 노동하여 정직하게 번 재물은 바르고 복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늘어나게 해주시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노란리본 언제까지

세월호 침몰사망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사망자들을 위해 유가족 등 수많은 국민들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진정에도 하였다. 정부 또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을 방문위로 했으며 모든 메스컴들은 쉬임 없이 방송보도를 했다. 세월호 침몰 사망사고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다.

그로인한 청해진 해운대표 구원과 유병연의 사망과 가족비리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원과 신도들은 유병연을 하늘같이 추종하여 모든 재산을 헌납하면서 구원과 신자임을 자칭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일부 신자들이 구원파에서 분산하여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선장을 비롯, 유병연 일가의 조직적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때로는 이견적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수사를 완료한데 대해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본사고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여·야의 합의가 어렵고 또한 유가족들과의 합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유가족을 위한 것 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음은 정객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야당 대표는 유가족 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조하여 광장에서 단식을 행하였으며, 야당 대표단 들은 청와대를 향해 장의 투쟁을 하면서 자당의 힘을 과시 하였다.

또한 유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40일간 단식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면담 하고자 함은 사망자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얼굴이며 국가의 통수권자인 동시에 국가의 주조인 것이다.

유가족대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을 직접 하고자 함은 자고한 마음인 것이다. 유가족은 사망자들에 대해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의 범위가 세월호에만 적용되어서는 또

다른 대형사고가 있을시 다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항공사고, 선박사고, 교통사고, 침수사고, 붕괴사고 등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가정하고 제정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하나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제정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아 앞으로의 장구한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에 폭넓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 야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내용으로 촛불행진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들은 애도 하고 있다. 모든 지방도시 거리마다 노란 리본으로 가득차 있다. 이는 진정한 애도와 위로의 표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좌파의 행렬들로 평가 할 수밖에 없다.

특별법 제정은 여·야 속히 의정안에서 실질적이고 진실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모든 대형 사고에 적절한 보상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 사고 수습과 피해보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잡음과 혼란을 초래 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사망자 애도의 표시로 전국 각 지역의 노란리본과 정치인들의 노란리본 뺏치가 신속한 보상 처리로 속히 철거 되어야 한다. 끝없는 정쟁의 투쟁은 진정한 애도를 위한 노란리본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 사고를 내세워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좌파세력들을 국민 모두가 살펴서 격리시켜야한다. 지역 곳곳에 매어달린 노란리본을 제거하여 정부와 여·야 모두가 안정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국가 정책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성임이사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프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림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파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안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침종은교회(김상진 목사)
28-30 천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최대식 목사)
4-7 갈멜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17 **축복대심방**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성용 목사)
8-11 성산수양원(홍동희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교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형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11 주왕기교회(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9-6월1 주주연속복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한교연합수련회(집회)
10-13 은사리교회(최대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원 원장)
17-19 나들예교회(최종덕 목사)
20-21 국내마지교회(송반)
24-27 천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산교회(신승훈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름강화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세계명교회(차영아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갈멜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진미디(여예배)
7-9 뱀열교회
14-15 정기교회
17 부흥사무원선교장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관음장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국교회(박성일 목사)
18-20 청원제일교회(최준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사랑교회(김창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영성가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목사)
4 금곡영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장로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목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일민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예배(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
왕림교회(최성근목사)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4년 4월

7-10 광선수양원(변만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근 목사)
21-22 정기교회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예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뱀열성교회(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10 에덴교회(양희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진희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갈멜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5-28 천문기원을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5-17 성산교회(유경춘목사)
22 은혜성결교회(정순출목사)
22-25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6-8 천호성결교회(여성성목사)
12 성문교회(이종래목사)
13-14 정기교회
14-16 진주기도원(김진홍원장)
20-23 인천세월교회(강규석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7-27 에덴교회(이원종목사)

2014년 11월

3-6 서광교회(배영길목사)
10-12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목사)

2014년 12월

1-4 송년축복성회(예복교회)
7-10 중앙전원교회(변천목사)
15-19 필리핀지역지키버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1 의성안평연합성회(장현수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웨신총회 제99회기, 총회장 이영풍 목사 당선

부총회장 조강수, 정일량 목사 추대, 총무 신언창 목사 유임



웨신총회장
이영풍 목사



웨신대원 총장
박형용 총장



웨신대원 이사장
한동숙 목사



웨신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가 지난 9월 15일(월)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71 향기로운교회(정일량 목사)에서 2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하여 제9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에서 한서노회 이영풍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총회에 앞서 부총회장 이영풍 목사(빛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김안식 목사(중부/월만한물가교회)가

기도를, 회록서기 정일량 목사(중앙/향기로운교회)가 창47:8, 민14:8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영풍 목사(수도/지구촌교회)는 “과거와 현재의 조명, 미래의 꿈이 있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의 열정이 영원하도록 증거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역에 불붙어서 총성을 다하며, 선한목자의 심정을 갖고

올바른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 복음의 불길을 정립하고 복음의 초점, 역사의 초점, 그리고 문화의 초점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회 상을 구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웨신총회가 2014년 제99회기 정기총회를 맞아 미래를 향한 결단과 꿈이 있는 총회로서 자랑스럽고 발전의 기회의



초석을 만들어 위대한 웨신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것을 작시했다.

이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서노회장 고재만 목사(양자교회), 2. 웨신총회와 노회, 지교회를 위하여 서부노회장 윤덕순 목사(주안교회), 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및 지방신학교를 위하여 대한노회장 박우재 목사 등이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는 격려사에서 웨신총회 제99회 성총회를 축하하고,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시

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이며, 또한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동북산성에서 독도까지 우리민족을 받들어 달라는 것이며, 아울러 웨신대학원대학교가 그러한 후배들로 가득차는 것이 한동숙 이사장의 소원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웨신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하여 뜻을 모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이사장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형용 박사는 축사를 통해 성총회를 축하하면서, “신학교의 존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웨신대학원대학교는 웨신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요청했다. 신학교가 탄탄하지 아니하면 총회도 탄탄할 수가 없다며 동반의 관계인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했다.

회원들을 환영하고 소개했다. 이어 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집례로 2부 성찬식이 시작되고, 성찬예식을 위하여 오상열 목사가 기도했다. 이날 라영수 목사, 정기범 목사가 분병위원을, 유승태 목사, 최재필 목사가 분병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의장 이영풍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순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제99회기 임원이 선출되었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빛 교회), ◆부총회장 조강수 목사(유임), 정일량 목사(신임), ◆서기 : 전복수 목사(주안교회), 부서기 : 박우재 목사(웨신대 대학노회), ◆회록서기 : 신동근 목사(서울/ 햇빛교회) 부회록서기 : 하종우 목사(한서/바울성교회), ◆회 계 : 양덕실 목사(경성/계산사당교회) 부회계 : 하영임 목사(한성/소망제일교회), 총 무 : 신언창 목사(연남/성암교회), 감사 :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 이이중 목사(강동/제일교회), 김춘택 목사(수도/원전교회), 허성인 목사(서울/신성교회) 등이다.

신임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취임사에서...

예장개혁 제99회 정기총회 총회장 김정열 목사 유임

신임 제1부총회장 강성희, 제2부총회장 장한국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는 지난 9월 23일 제99회 성 총회를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주사랑교회(담임목사 장한국)에서 개최하고 현 총회장 김정열 목사가 유임되고, 제1부총회장에 강성희 목사, 제2부총회장에 장한국 목사가 선출되었다.

총회 회록서기 임순중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장한국 목사(대한노회장)가 기도하고, 김재길 목사(부산노회장)가 성경 고후 4:1~5절을 봉독하고, 윤글로리아 목사(수도노회)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총회장 김정열 목사

는 “총성된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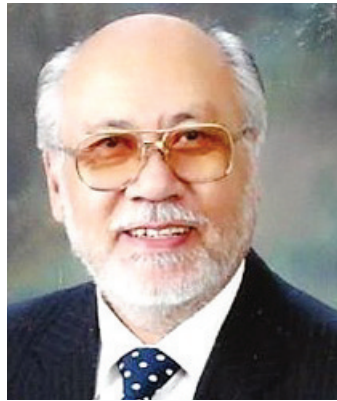
이어 회계 홍시나 목사가 봉헌기도를, 서기 조재호 목사의 광고와 중경총회장 이은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수도노회장 김중환 목사의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이 진행되고 분병위원은 조조복 목사, 박진국 목사, 분찬위원은 도요한 목사, 박민규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위원장 김중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장개혁총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제99회 성 총회에서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총회 장 김정열 목사(중부노회) 제1부총회장 강성희 목사(경전노회), 제2부총회장에 장한국 목사(대한노회), 서기 조재호 목사(경기노회), 부서기 도요한 목사(서울중앙노회), 회록서기 임순중 목사(대전노회), 부회록서기 김재길 목사(부산노회), 회계 박민규 목사(대한노회), 부회계 조순형 목사(경기노회) 등이다.

이날 총회장 김정열 목사는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시는 총대여러분의 열의와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길 기원하고, 본 총회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고수하고(히13: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통치자라는 바른 교회관의 확립으로 모든 사역자들은 특권 의식을 주장하는 자세보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받들도록 힘쓰는 회원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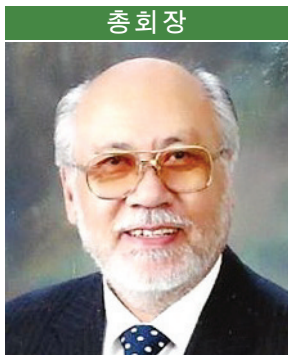
예장개혁총회장
김정열 목사

따라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선교하는 총회, 바른 신학교육으로 유능한 교역자를 양성하는 개혁신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총회, 특히 자신의 평화와 개혁(딤후4:1~6)을 중심으로 회개와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화목과 합동운동(엡4:1~4)을 합법적으로 힘쓰는 총회, 성도 개인 개인이 믿음으로 성실히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과 같이 각 노회 각 지 교회들도 의무를 잘 이행하는 총회, 교회를 전도하는 이단들의 극성을 청정히 대처하는 총회가 되도록 총 결기하는 회원들이 되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가는 총회로 우뚝 서 갈 것을 다짐하며 인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제99회 신임원

주제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 9:31)



김정열 목사
중부노회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졸업 또는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인수

● 특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화 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함

● 천안개혁총회신학

학장: 김정열 박사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2-4 (2층)
새예루살렘교회
전화: 041-534-8765 010-2695-0391

●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임순중 박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큰산성교회 內
전화: 042-320-9193 010-6413-3456

●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이은우 목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전화: 010-5511-4848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광고협찬 : 대한노회 및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노회장) 축하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에서 한기총 이영훈대표회장 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2일 이영훈 목사(기하성 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한기총 20대 대표회장으로 무투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처해왔다. 그러나 WCC(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져서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출범했다.

이영훈牧사는 2013년 5월 2일에 열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 정기총회에서 WCC총회가 일부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씻어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희망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채택했던 교단의 총회장이다. 또한 이영훈 목사는 "WCC 부산총회 유지에 기여한 조용기 목사의 뜻을 따라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CBS가 제작한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DVD를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WCC총회를 앞두고 WCC 헌신예배를 드리며 한 설교에서 그는 "WCC 부산총회를 계기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정의의 강물이 흘러내리길 바란다"며 WCC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영훈 목사는 NCK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NCKC홍리시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WCC총회 준비위원장으

로 활동했다.

또한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기여한 조용기 목사의 후계자이고, WCC부산총회에 직접 참석해 설교 및 기도회를 주관하는 등 WCC를 적극 지지하며 활동하던 목사로서 WCC를 반대해 온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였으니, WCC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한국교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 인사말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역대 한기총 회장들이 지켜려 했던 설립정신을 적극 지지·수용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함께 발표한 7개항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1항= 한기총 신앙노선 계승 ▲5항=WCC 내의 잘못된 신학 사상 반대,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동성애 반대 ▲7항=NCKC와 정교회가 가톨릭과 맺은 신앙직제협의회 반대 등 WCC와 NCKC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한국교회 보수주의의 수호를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한 말인지의 진위가 궁금하다.

또한 지난달 19일 이영훈 목사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말하기를 기독교가 WCC, WEA, 가톨릭 등 세계교회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중성을 보였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만약 진실로 한국교회의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한다면 WCC와 NCKC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진심을 하나님 앞과 한국교회에 공개적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우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한국교회의 보수신앙을 수호하며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이영훈 목사의 결단을 지켜보았다. "보수신앙을 견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영훈 목사가 진실로 보수신앙을 견지하려면 우선 WCC와 NCKC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들과 싸워 나가는 것만이 보수신앙을 전통을 수호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바라기는 한기총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보수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서 본이 된다면, 실추된 위상이 어느 정도는 회복 되리라 본다. 우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설립정신인 보수신앙을 지켜나가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2014. 10. 1

대표회장 이범석 목사 외 46개 총회원 일동

“한기총은 최삼경의 이단 여부 입장 밝혀달라”

‘류광수, 박윤식, 최삼경 목사의 건’ 카톨릭과의 신앙직제일치 관한 한기총 입장을 요구하기로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예장총회)가 한기총을 향해 3개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것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예장총회는 29일 99회기 총회 회부처리 말미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경직 목사가 3개항의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1. 한기총에서 박윤식, 류광수 목사는 이단이라서 이단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박윤식 목사는 법원에 의해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동총회가 류광수 목사,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운운하고 있다. 따라서 한기총이 박윤식, 류광수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

2. 합동 99회기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청치부장 오정호 목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결의하였는바, 한기총은 삼신론 및 마리아월경임 태론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3. 카톨릭과 신앙 직제일치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을 밝혀 달라. 등 3개항을 제안했다.

총회장 홍재철 목사는 긴급 동의안에 대해 “한기총에서 류광수 목사는 세번 조사했고, 박윤식 목사는 청원에 의해 조사했다. 두분다 충분히 조사했고 이단이 아님을 검증하고 확인했으며 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검증결과 는 국민일보 등에 공개했다. 이 분들

은 처음 부터 이단이 아니었기에 한기총에서 이를 발표해 달라 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긴급 동의안에 모두 찬성하고 한기총에 이를 공문서로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예장총회의 청원에 대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기총은 10월6일 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경직 목사

대한민국, 밀바탕부터 확 바뀌야 산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어

근대 민주국가는 대체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근간으로 한다. 그에다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달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여론을 좌우 하는 언론이 제4부로 평가 되는가 하면, 비정부간단체(NGO)를 제5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정통적인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못잡게 영향력이 팽대한 신문 방송통신 및 포털과 SNS, 여론조사업체 등 광범한 언론분야와 노동,환경,사회,문화,종교 등 잡다한 시민단체(NGO)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됐지만,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개척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만큼 건강한가? 이에 대한 답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국회는 무능한 여당과 타협을 모르는 야당 내 친노와 종북성향 강경파의 횡포로 ▲민주주의기본인 다수결원칙과 ▲반정부반체제투쟁거점화 ▲입법 ‘제로’ 의회기능상실 ▲국정을 정체와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마치 무능의 표본이자 비리의 본산처럼 비쳐지면서 국회무용론과 국회 및 정당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헌법적 가치와 법치의 보루이자 사회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사조직(私組織) 및 노조와 민노(통진/정의)당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좌편향 되고, 편파판결, 막발판사, 토착세력유착 향판(鄉判)으로 인해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좌파관용우파엄단이라는 비난과 ▲석궁데려 등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됐다.

사법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북한 노동당에 포섭 학습 세뇌, 지하당이나 불순조직에 가입,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북의 지령 또는 사주를 받거나 선전선동에 몰아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투쟁에 나선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고 ‘간첩이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소송남발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부 역시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정치사회적 주류가 교체 된 이래, 정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국정정의 파

행을 거듭한 나머지 IMF 사태를 거치면서 후진적 관료주의 적폐(積弊)가 심화 되어 정경유착과 지연학연 영향으로 관(官)피아, 검(檢)피아, 경(警)피아, 해(海)피아, 철(鐵)피아 등 부정비리막이 사슬이 고착,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세월호사고 하나만 놓고 보아도 구조 및 수습의 난맥상은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유병언을 놓쳤는가하면, 새로운 의혹만 양산 해온 수사 결과발표, 부정부패비리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50억 골프채권 관련 의혹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정당국의 부정비리적 결의지를 의심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도 분명하다.

세월호사고는 본질적으로 대형해상교통사고이다. 그러나 사태진전을 보면 소위 야권 종북세력들은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악용, 당면해서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여 정권탈환전쟁의 이슈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적화통일을 목표로 체제전복 이념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국민과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고 방황할 여유도 시간도 없음이다.

다른 한편, 소위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은 DJ집권직후 언론문건과등을 비롯한 언론과의 전쟁(언론개혁?), 6.15식후 영기적인 남북언론합의서, 노무현정권의 신문방송 통신 구조개편(?)을 빙자하여 무모하게 진행된 언론 잡도리와 기차실 대 못질 등 언론 지배, 법적인 거와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난립한 ‘여론조사업체’에 의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 횡포와 폐단이 횡행하는 가운데 언론전반이 무책임한 황색지날리즘과 좌경화심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기반이자 모태라 할 학원과 산업현장, 노동계 및 종교계가 1970년대 이래 북과 남조선혁명력강화 노선에 입각한 간첩남파와 지하당구축, 전위조직확대, 통일전선강화 등 노동당의 집중공세에 무방비로 노출, 적화현상(赤化現象)이 사회구석구석 저변까지 만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제5부라고 일컫는 시민사회단체(NGO) 역시 급속하게 좌경화 하면서 DJ 정권하에서 결성된,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진보연



칼럼리스트 백승묵 대기자

대,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조직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2000년 16대 총선을 계기로 낙천낙선(落薦落選)에 뛰어들면서 어용 정치화를 거쳐서 급기야는 적화투쟁 도구로 악용되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부종교계와 결탁 광택대추리폭동, 공우병충벌폭동, 한중 및 밀양 ‘희망버스’와 세월호사고 관련 헛불시위에서 보듯 ▲의식화(계급노선) ▲이념화(종북성향) ▲집단화(군중노선) ▲조직화(통일전선) ▲폭력화(혁명투쟁)로 치달아 국가발전과 사회 안전의 축으로서 건설적 역할 대신에 대남혁명전위로 전략 정치사회적 안정과괴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역대정권의 무능과 비리 부정부패 탓이기도 하지만, 월남적화를 전후한 한반도 위기 시에 집중된 김일성 대남 침투 및 지하당구축, 통일전선공작의 폐해와 여독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배경에는 북괴 노동당과 그 조종 및 사주를 받고 있는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의 조직적인 반정부/반체제 투쟁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호는 시한부 말기 암환자에 비유 될 만큼 급박하고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내몰렸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임시변통이나 표피적인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대처와 사활을 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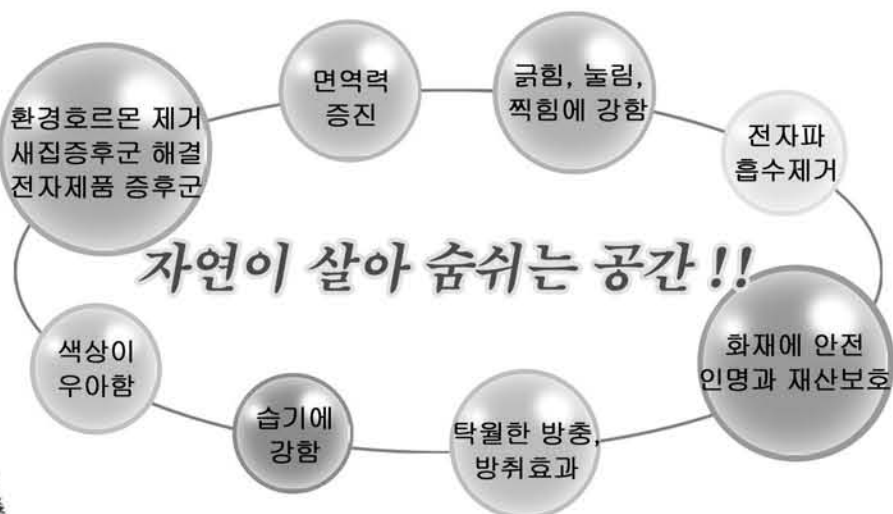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와 법치에 기반 하는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에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어떤 주장이나 요구, 사고나 관행도 용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GO, STOP, PASS BY) 간단하고도 엄정(嚴正)한 신호등 원리에 충실하는 데에 해법이 있다.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습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용범위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학교, 유치원, 요양원, 호텔, 체육관, 사무실 등

상담문의 : (주)헤스코 ☎1577-0671

E-mail : hesko@naver.com www.hesco.co.kr

예장순장, 제62회기 총회장 권정희 목사 선출

개혁주의사상, 보수성향의 목회와,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제 62회 정기총회가 지난 22~23일 경기도 화성시 안전교회에서 개최되어 51,52대 총회장을 역임했던 권정희 목사를 제62회기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회무에 앞서 총회장 지태영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서정화 목사가 기도하고, 지태영 목사가 사도행전 9장31절을 본문으로 "동질성을 통해 하나 되게"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한 후 성찬식을 집례하고, 김일수 목사의 광고에 이어 지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와 성찬식을 마쳤다.

또한 총회는 이날 '수양관 매각자금 중 60억 원을 총회부동산매입으로 사용하며 그 수익금으로 신학교를 돕기로 하고, 개척교회 지원 및 은급금, 장학금으로 5억 원을 사용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또 동부노회에서 상정한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



과패 총회 내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총회장 권정희 목사는 "그동안 총회와 노회 일보다는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날 총회장에 추대되었고, 맡겨진 일에 총회와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세 가지들 들어 소감을 피력했다.

1.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하지만 신앙적인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단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도 많은 개 교회가 사리사욕에 잡혀 있어서 안팎으로 목을 먹고 있는데 본 교단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또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회를 섬길 것입니다.

니다.

2. 항상 개혁주의사상 입장에서 보수성향의 목회를 위해, 교단차원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선후배간의 관계, 목사 장로간의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교단의 화합과 일치단결을 위하여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3. 교단신학교의 향방을 놓고 이사장과 총장, 교단의 어른들과 협력해서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하여 좀 더 진보되고 발전된 신대원의 위상을 나타내고,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제62회기 순장총회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권정희 목사(송덕교

회) △부총회장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부총회장 정영섭 장로(신원예담교회) △서기 김일수 목사(동신교회) △회의록서기 이준호 목사(겨자씨교회) △회계 위용찬 장로(안전교회) △부회계 최명철 장로(성산교회) △시찰부장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 △시찰부부장 최도섭 장로(동천교회)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늘푸른교회) △선교부부장 손근수 목사(새소망교회) 장인성 장로(대천교회) △교육부장 정태후 목사(동인교회) △부부장 김영대 목사(영암교회) △고시부장 서정환 목사(안전교회) △재단부장 김일광 장로(창대교회) △재단부부장 최창수 장로(한빛전원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해맞음교회) 등이 선출됐다.

에조브(우슬초)선교회 발족 기념예배



국, 내외 청각인, 노숙자, 무의탁 노인, 교도소 재소자, 경찰직원들 위해 헌신 다짐

원장 박용숙 목사(우슬초)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본당에서 "에조브(우슬초)선교회" 발족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발족 기념감사예배를 드린 '에조브(우슬초)선교회'는 지난 5월 10일 청각인의 날 기념 및 나눔 축제 행복의 일일 찾집을 개원한 후 수익금 전액을 전하는 자리에서 본회가 조직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한요셉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최요셉 목사의

인도로 에조브선교회 발족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선교회장 우슬초 목사의 인사가 있은 후 김성갑 목사가 기도를, 남보석 목사가 성경 고후 9:8절을 봉독하고 아도나이 찬양단, 수원할렐루야 농악교회 중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찬양이 있었다.

이날 엄신형 목사(중흥교회/한기총 중경회장)의 설교말씀을 전하고, 경찰청 경목총회 총회장 김진수 목사, 흥향포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멕시코 레스토라시온 아

가페교회 박용태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신기남 목사가 봉헌기도를,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총무 박형철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수원할렐루야농악교회 임해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경찰기독교발행인 정기남 목사가 오찬기도를 했다.

이날 에조브(우슬초)선교회 원장 박용숙 목사는 일찍이 서예와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국, 내외 청각인, 노숙자, 무의탁 노인, 교도소 재소자, 경찰직원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해 왔다. 또한 박용숙 목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님처럼 적으나마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에조브(우슬초)선교회는 교역자 및 선교회원들의 헌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 인사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집하고 있다. 본 선교회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8-6 번지 주성청각장애인교회에 있다.

한편 본 선교회 후원은 02)414-1191 집 : 02-423-5154 담당목사 : 박용숙 목사(010-3775-5154)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1(수) 오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3(금)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1)947-0091
주최 : 한국기독교선교부흥협의회(총재 고홍진 목사)
6(월)~ 8(수) 서울 새생명복음교회(김은숙 목사) ☎(02)3142-5336
13(월) 오전 기도처우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총재 정요한 목사)
13(월) 저녁 안산 예방기도원(원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13(월)~14(화) 동서울노회, 장소: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02)3495-1001
14(화) 저녁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연합성회
15(수)~18(토) 남북통일평화기도회(장소: 평양 분수교회) ☎ 010-3633-3732
주최: (사)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19(수)~22(수) 안전 서부제일교회(공성기 목사) ☎ 010-3733-3843
제186차 해외성회(186th Overseas Assembly)
24(금)~25(토) 미국(U.S.A) 새생명교회(심명구 목사) ☎(213)5703-8726
26(주) 오전 미국(U.S.A) LA 감리교회(김종근 목사) ☎(714)356-5055
27(월)~29(수) 미국(U.S.A) 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강일진 목사) ☎(702)453-5433
주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
31(금) 오후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예배
주최: 복음주의 신앙운동(대표회장 정재갑 목사)
장소: 서울 선교중앙교회(정재갑 목사) ☎02)813-8455

제8회 세계한인의 날 국회기념 및 세계한인교류협력 대상 시상식

대상에 김창준 미연방 하원 3선의원,임용근 오리건주 상하 양원 5선 의원 수상

지난 10월6일(월)아침 07시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제8회세계한인의 날 국회기념식 및 시상식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범종교계 인사와 여야 정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지구촌 한인사회와 각계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날 W-KICA 고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개회선언에 이어 창설자인 김영진 상임대표(전 농림부장관)의 개회사와 상임고문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한일기독교의원맹 지도목사)의 공동기념사, 정계 대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성곤 새정치연합 해외한인

조직담당 수석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재외동포재단 조규향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순서 담당자 전원과 내빈들이 8주년을 기념하는 시루떡 자르기 후 성악가 김예정 목사의 연주 후 "한민족의 봄을 알리는 사랑의 하모니여!"라는 제목으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헌시를 낭송

했다.

올해 4회 세계한인교류협력 대상은 미국 워싱턴 연방 3선 의원인 김창준 의원과 미국 오리건주 상하 양원 5선을 역임한 임용근 의원이 수상하며, 대형 상패와 기념메달을 수여 했다. 상임대표단은 이형모 대표(재외동포신문), 박해용 회장(4·19선교회), 이명휴(나눔과기쁨 교문), 김정길 회장(4월회)등 4인을 W-KICA교문단에 위

촉하고 김영진 상임대표가 고문 위촉패를 수여했다.

한편 마지막 위안부 영화제작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상임대표와 임기환 대표가 맡았다. 이날 기념식은 은혜학교재단 이무용 이사장의 만세삼창과 백석대학 박주목 교수의 축가, 사무총장 장현일 교수의 인사 및 광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일행은 국회 정문관에서 해외한인의 권익신장과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gho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원명성
·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윤경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심재현 · 지 휘: 조은총, 양소정
·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호후 8:00	금요일아 예배 밤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6:30

가보고 싶은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 추천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